

■ 주요 뉴스: 트럼프 상호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 일축 속 주요국 무역긴장 완화 노력

- 미국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자산가격 밸류에이션 리스크 경고
-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속보치 대비 소폭 둔화
- IMF, 세계경제는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무역긴장 완화 기대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세 지속

주가 상승[+0.7%], 달러화 강세[+0.2%],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은 양호한 실적발표 속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
유로 Stoxx600지수는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글로벌 무역긴장 완화 움직임 등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2%, 엔화 가치는 -0.7%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무역협상 타결 기대에 따른 매수세로 하락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2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435.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8.5원, 0.14% 상승). 한국 CDS 하락

		4/25일	4/24일	전일대비			4/25일	4/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525.2	5,484.8	0.74%	국채 금리 10y	미국	4.24%	4.31%	-7bp
	유럽	520	519	0.35%		독일	2.47%	2.45%	2bp
	중국	3,295.1	3,297.3	-0.07%		영국	4.48%	4.50%	-2bp
	일본	35706	35039	1.90%	CDS 5y	한국	32bp	33bp	-1bp
	한국	2546.3	2522.3	0.95%		중국	61bp	64bp	-3bp
환율	달러지수	99.587	99.377	0.21%	위험 지표	EMBI+	388	389	-1bp
	유로화	1.1365	1.1390	-0.22%		VIX	24.84	26.47	-6.16%
	엔화	143.7	142.6	-0.72%		WTI유	63.02	62.79	0.37%
	위안화	7.2867	7.2889	0.03%	원자재	구리	484.00	485.60	-0.33%
	원화	1436.5	1435	-0.10%		금	3319.7	3349.4	-0.8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 일축 속 주요국 무역긴장 완화 노력

- 90일 유예기간 이후 또다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중국이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한 대중 관세를 낮출 생각이 없다고 발언
-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3~4주 안에 교역 파트너들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일본과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음을 시사
- 한편 EU의 최저한세 개정 검토, 중국의 일부 제품에 대한 125% 관세 면제 검토 등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무역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
 - － EU는 다음주 회원국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이라고 판단하는 최저한세의 소득산업보완규칙(UTPR) 적용 면제 기간을 당초 ‘26년말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의료 장비, 에탄과 같은 일부 산업용 화학물질, 항공기 리스 등에 대한 고율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Bloomberg)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자산가격 밸류에이션 리스크 경고

- 4월초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지적. 금융 레버리지 취약성은 여전히 높으며, 은행들의 고정금리 자산의 공정가치 손실이 상당한 규모를 유지
- 한편, 향후 12~18개월 동안 금융안정에 잠재적 충격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서베이에서 글로벌 교역에 대한 위험, 정책 불확실성, 정부부채 지속가능성이 응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채시장 기능에 대한 우려도 확대

■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속보치 대비 소폭 둔화

- 4월 미시건대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6.5%로 속보치(6.7%) 대비 소폭 둔화하고 5~10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4%로 속보치에 부합했으나 여전히 각각 '81년, '91년 이후 최고수준. 한편, 4월 미시건 소비자심리지수는 52.5로 속보치(50.8)보다 개선되었으나 팬데믹 이후 최저수준

■ IMF, 세계경제는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

- 지난 몇 년간 교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던 가운데 무역긴장이 급격히 치솟아 불확실성, 시장 변동성, 성장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으며 세계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는 성명 발표
- 한편 아시아 경제는 대외수요 약화, 미국 관세인상 등에 따른 이중고로 성장률이 25년 3.9%, 26년 4.0%에 그치고 미국과의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하방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 다만,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보다 강한 상태에 있다며 내수 지원 및 글로벌 무역분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평가

■ 중국 중앙정치국, 무역분쟁 격화 속 비상대책 마련 약속

-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 비상대책과 정책도구 마련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판공성 인민은행 총재도 필요한 경우 적시에 새로운 점진적 정책을 도입하여 외부 불확실성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발언

■ 라가르드 ECB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 2% 내외 등락 전망

- 기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치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평가

■ 영국 3월 소매판매, 3개월 연속 증가

- 3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대비 +0.4%로 팬데믹에서 회복하던 '21년초 이후 최대폭 기록. 기록적인 화창한 날씨에 따른 의류 판매 증가 등에 기인. 다만 이러한 소비자지출 회복세는 무역긴장 고조, 일련의 연간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신뢰 하락으로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

■ 일본 도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년래 최고수준으로 상승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4% 상승, 헤드라인은 3.5% 상승. 이는 작년 학비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최근 쌀 가격 상승세 지속, 정부 보조금 축소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기인

주요 경제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4/28~5/2)

- 미국 1분기 GDP, 4월 고용지표, 3월 JOLTS 등
- BoJ 통화정책 회의, 유로존 1분기 GDP 및 4월 HICP, 주요국 PMI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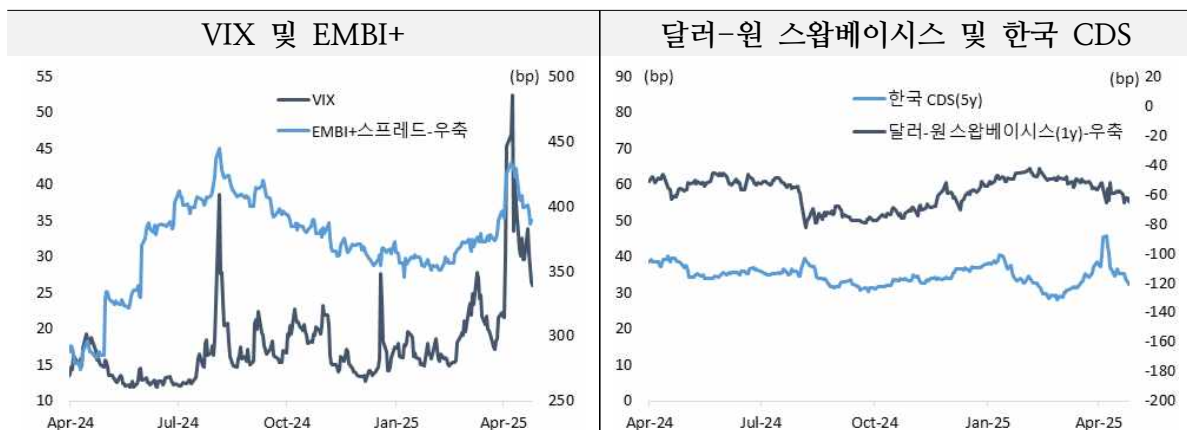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4, E-mail yshwang@kcif.or.kr